

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

I. 청년도약계좌 개요	1
II.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	2
1.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	2
2.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	3
3. 부분인출서비스 도입	4
4. 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UX 개선	5
5. '도약이' 멤버십 강화	5

【참고】 청년금융 포커스그룹 운영 결과

I. 청년도약계좌 개요

1 가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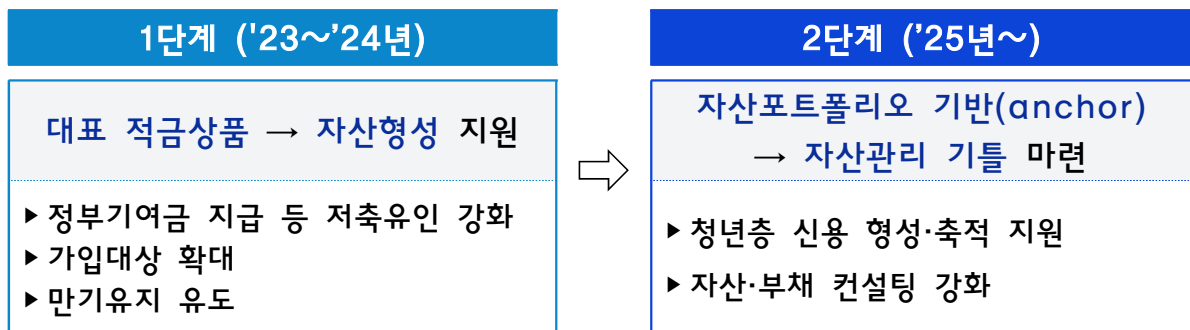
- '23.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후, '24.6월말까지 총 **133만명**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였으며, **120만명**이 가입 유지 중
 -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수(587만명, 금융연구원 추정)를 감안할 때, **청년 5명 중 1명 이상**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
 - **가입유지율**은 **90%**(=120만명/133만명)로 **높은 수준**
 - * 가입유지율 : [은행권 일반적금] 45% 내외^{1년 만기}
[청년희망적금] 80%^{1년 경과} → 70%^{2년 경과}

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('24.6월말 기준) 〉

	✓가입자 평균연령 : 28.1세	✓가입 후 평균 6.3개월 경과
	✓평균 납입잔액 : 524만원 * 일시납입액 포함 * 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	✓평균 기여금 수령액 : 19만원 - 일반납입 : 최대 29만원 - 일시납입 : 최대 77만원

2 운영 방향

-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이 선택하는 **①대표 적금상품**이자 **②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반(anchor)**이 되도록 지속 개선·운영



※ 청년금융 포커스그룹, 관계기관 실무작업반 등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금융수요 및 금융애로 수렴 → 추진과제 발굴

Ⅱ.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

1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

- ☐ (현행)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예·적금 등 수신정보는 본인 요청으로 신용평가사에 제공시, 개인신용평가점수(‘신용점수’)에 반영
- ☐ (개선) 현행 수신정보 제공에 따라 반영되는 신용점수와 별개로, **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시 추가 가점 부여**(자동 반영)
 - 청년도약계좌에 ①2년 이상 가입하고, ②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, 신용점수 가점을 **최소 5~10점 이상** 부여

< 신용점수 가점 부여 방안 >

현 행	개 선
▶ 수신정보는 본인 요청시에 반영 ▶ 일정기간·일정금액 이상 납입시, 수신 정보 토대로 신용점수 산출 반영 * 예 : 0개월, 000만원 이상 납입시 5점 부여(상품 무관)	▶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 반영 ▶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(2년 이상, 누적 800만원 이상)시 가점 추가 부여 * 최소 5~10점 이상(NICE, KCB)

- ☐ (효과) 저축유인 제고 및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축적(credit build-up) 지원
- ☐ (일정) 전산개발 등을 거쳐 시행('24.4분기)

< 신용점수 가점 부여 관련 참고사례 >

- ▶ 정책서민금융상품 :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12개월 이상 상환시 **5점**(NICE) 또는 연체없이 50% 이상 상환시 상환비율에 따라 **5~10점**(KCB) 부여 중
- ▶ 통신비 등 : 6개월 이상 성실납입시 **5점**(NICE) 또는 납입기간에 따라 **5~15점**(KCB) 부여 중
- ▶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: 6개월 이상 성실납입시 **2~10점**(NICE) 또는 납입기간에 따라 **5~15점**(KCB) 부여 중

2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

- (현행) 자산관리에 대한 청년층 관심도는 크나, 재무상담·자산 관리 역량 축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미비
- (개선)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(오프라인 센터 + 웹사이트)를 구축하여 자산·부채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

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		
자산·부채 컨설팅 서비스	금융지식 허브	경험공유 플랫폼
▶ 신용·재무여건 분석 ▶ 자산관리 목표 설정·관리	▶ 금융·자산관리 지식축적 지원 ▶ 체험형 교육콘텐츠 제공	▶ 자산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공유 플랫폼 운영

- ① (자산·부채 컨설팅) “신청 → 컨설팅 → 사후관리” 3단계에 걸쳐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

- i) 신청 : 온·오프라인 채널로 신청 → 전문컨설턴트(재무설계사 등) 배정
*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저소득 청년 우선 지원
- ii) 컨설팅 : 신용·재무여건 분석, 장·단기 자산관리 목표 설정,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지원
- iii) 사후관리 : 자산관리 목표 달성 여부 등 모니터링 및 관리

- ② (금융지식 허브) 다양한 참여형·체험형 금융지식 콘텐츠 제공

- ▶ 참여형 금융 콘텐츠 : 금융 TED, 토크 콘서트, 일대다 상담 등 참여형 금융 강좌·미팅·상담 제공
- ▶ 금융·자산관리 시뮬레이션 : 온라인에서 다양한 금융상품(대출·보험 등)을 모의로 이용하면서 결과를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
- ▶ 금융교육 연계 : 금융교육 사이트와 연계하여 온·오프라인 지식 콘텐츠 제공

- ③ (경험공유 플랫폼) 전문컨설턴트들의 컨설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→ ‘자산관리 꿀팁’ 등 공유

- (효과) 청년층 자산·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고, 금융경험 확대
- (일정) 오프라인 센터(5개) 개소 및 웹사이트 개설(’24.4분기)

3 부분인출서비스 도입

□ (현행)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직면할 소지를 감안하여 특별중도해지 및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중

○ 다만, 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부득이한 목돈 지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 有

* 적금담보부대출 : 대출금리(연 5.0~7.8%)가 높고, 대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존재

□ (개선)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, 만기前 납입액 일부인출이 가능한 **부분인출서비스*** 도입(납입액의 최대 40% 이내에서 제한적 허용)

* 대다수 은행권 일반적금상품에서 운영 중인 부분인출서비스 벤치마크

〈 부분인출서비스 운영(안) 〉

이용대상	▶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, 2년 이상 경과자 로 한정
인출가능액	▶ 납입원금(누적 납입액)의 최대 40% 이내
이자	▶ 부분인출분에 대하여 약관상 중도해지이율 적용
이자소득세	▶ [가입 3년 미만] 부분인출분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▶ [가입 3년 이상] 부분인출분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
정부기여금	▶ [가입 3년 미만] 부분인출분 해당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▶ [가입 3년 이상] 부분인출분 해당 정부기여금의 60% 지급 (40% 환수)

* 이자, 이자소득세, 정부기여금 : 전액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

□ (효과) 청년들이 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, 부득이하고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·자산형성 지속 가능

□ (일정) 상품약관 개정('24.4분기) 및 시행('25년~)

〈 부분인출서비스 활용 예시 〉

구분	① 2년간 1,250만원 납입 (누적 정부기여금 60만원)	② 4년간 2,500만원 납입 (누적 정부기여금 120만원)
인출가능액	최대 500만원(1,250만원 × 40%)	최대 1,000만원(2,500만원 × 40%)
이자	중도해지이율(최대 연 2.4%) 적용	중도해지이율(최대 연 4.5%) 적용
이자소득세	과세	비과세
정부기여금	정부기여금(24만원*) 미지급 * 60만원(누적 기여금) × 인출비율 40%	정부기여금(48만원*) 중 일부지급(60%) * 120만원(누적 기여금) × 인출비율 40%

4 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UX* 개선

* User Experience

- (현행) 각 은행별 앱(App)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제공 수준·방식이 상이하고, 필수정보·혜택 확인에 불편함 존재

* □□은행 : 자유적립식 구조인 점에 대한 안내 부족

* ○○은행 : 정부기여금 지급현황을 앱 화면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 복잡

* △△은행 : 우대금리 충족 여부 정보 미제공

- (개선)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 관련 필수정보*·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 개선 유도

* 필수정보 :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, 우대금리 충족 현황, 만기시 기대수익, 자유적립식 구조 등

- 연계 서비스(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등) 접근도 용이하도록 설계

- (효과) 청년도약계좌 필수정보·혜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저축유인 제고

- (일정) 청년도약계좌 관련 앱 UX 개선('24.4분기)

5 '도약이' 멤버십 강화

* '도약이' :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애칭

-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('24.7.23일~)하여 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관련 정보·혜택 제공을 강화

-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납입 목표 챌린지*, 금융지식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

* 예 : 월 납입목표를 설정하고, 일정 횟수 이상 달성시 우대 등

- ◆ '24.6월, 다양한 프로파일의 청년 24명으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운영
→ 청년도약계좌 및 금융수요 관련 심층토론 및 인터뷰 진행

1. 청년들에게 인식되는 청년도약계좌 이미지

- ☐ (위험기피자) ①저축 습관을 길러주고, ②향후 금융생활의 기반이 되는 목돈을 형성해 주는 상품
- ☐ (위험선호자) ①자산포트폴리오 內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, ②무분별한 소비·투자를 제어해 주면서 자산축적 지원

2. 청년도약계좌 정책 이해도

- ☐ 중도해지자 중심으로, 청년도약계좌가 자유적립식(납입액을 1천원~70만원 범위에서 매월 조정가능)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 多
 - * 월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지도 低 → 매월 동일한 금액(예 : 50만원)을 납입한다고 생각했고, 이를 마련하지 못해 중도해지한 사례도 有
- ☐ 긴급한 목돈 필요시, 대처 방안으로 중도해지가 주로 언급
 - *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은 높은 대출금리(연 5.0%~7.8%), 신용점수 하락 우려, 대출이 갖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기피

3. 정책 제언

- ① 신용점수·주거 등 청년에게 필요한 부문과의 연계 강화 필요
-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목돈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 보강 건의
 - 일반 적금상품에 있는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필요성 언급 多
- ③ 금융상품 정보제공, 자산관리 컨설팅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 역량 제고를 돕는 서비스 필요
- ④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살리도록 정부기여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, 가입 유지시 인센티브 부여 등 희망